

2023. 4. 19.(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4월 1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02-2133-2260
노선팀장	박흥식	02-2133-2281
담 당 자	이겨라	02-2133-2283
정류소관리팀장	심윤희	02-2133-2295
담 당 자	이성열	02-2133-2296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5매

서울시 22년 광역버스 승인율 82%·수도권 교통난 해소 기여

-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광역버스 신설 증차 수용 60%→82%·전향적 협조 결과
- 서울진입 광역버스 19년 대비 일일 820대(28%) 증가, 강남대로 출퇴근 통행↑
- 김포 골드라인 혼잡개선 '70번', 시계 외 혼잡 개선·사각지대 교통 증진 사례 다양
- 시,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시민 안전 최선...광역버스 전향적 협의 추진
-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개선 등 수도권 교통 편의 증진 추진 병행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대광위, 경기, 인천 광역버스 노선 승인율을 대폭 높이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교통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경기, 인천지역에서 서울진입 광역버스는 출퇴근 이동을 위한 필수 대중교통인 만큼, 고충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 서울시는 21년~22년 광역버스 서울 진입 노선 협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21.4) 승인율이 약 82%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시계외 노선 신설, 증차에 전향적으로 협조한 결과다.

- 38대 임기 전인 21년 1~3월 승인율은 60.9% 수준이었으나, 21년 4월부터 22년까지 2년간 광역버스 승인율은 약 82%까지 대폭 증가했다.

<서울진입 노선 협의 현황>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소계	1~3월 (38대임기전)	4~12월 (38대임기후)	
요청	920	378	220	46	174	322
승인	724	287	171	28	143	266
불승인	196	91	49	18	31	56
승인비율	78.7	75.9	77.7	60.9%	82.2%	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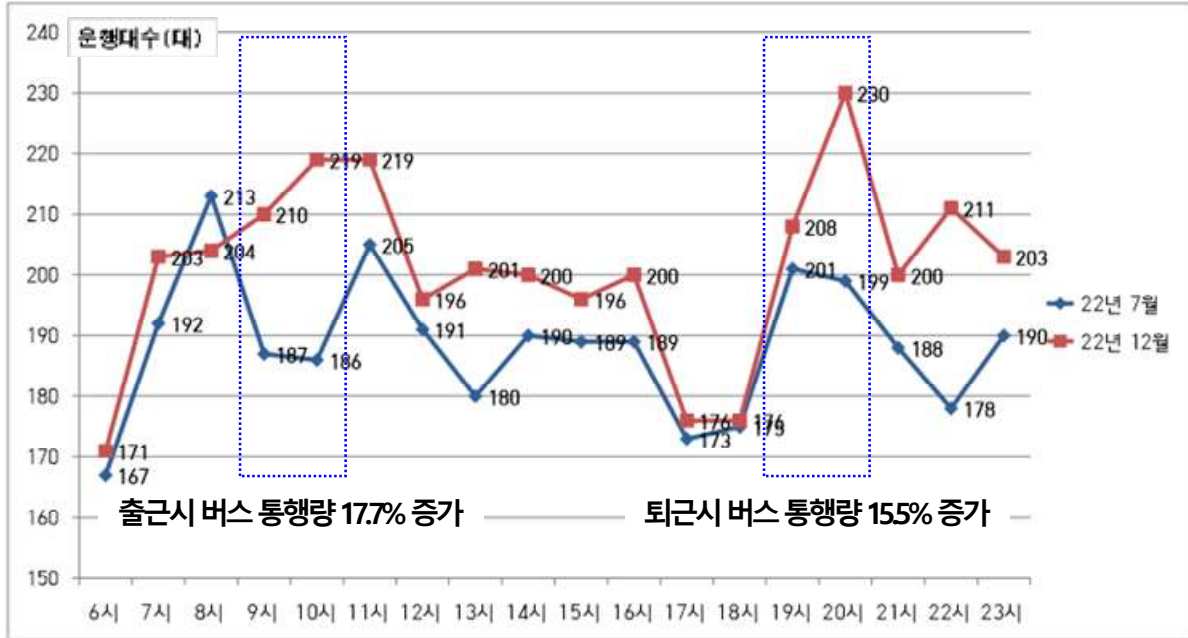
- 현재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는 323개 노선, 일일 3,776대이며, 이는 코로나 전인 19년도 일일 2,956대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약 820대(28%)나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시계의 노선이라 하더라도, 서울시는 점차 증가하는 신도시 인구와 발맞춰 광역버스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진입 광역버스 현황 (23. 3 기준)>

지역	주요지점	노선수(개)	운행대수(대)
강남	강남역, 신논현역	76	803 (21.3%)
도심	광화문, 서울역	55	736 (19.5%)
부도심	잠실, 강변, 사당 등	192	2,237 (59.2%)
총계		323	3,776

- 실제 출퇴근 버스 통행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광역버스 입석 문제가 대두된 22년 하반기에는 혼잡도와 입석을 완화를 위해 321대 578회 증차 협의에 동의했고, 출·퇴근 강남대로 버스전용차로 버스통행량은 22년 7월~12월까지 5개월만에 각각 17.7%, 15.5%가 증가했다.

<강남대로 버스전용차로 버스 통행량>



- 광역버스 노선 협의로 인한 개선 사례도 다양하다. 서울 시계의 노선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혼잡도 완화와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사각지대에 서울 진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김포 시내버스 70번** : 우선 김포 골드라인 노선 혼잡 완화를 위해 골드라인 차량 증차 전 ('24년 9월)까지 증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배차간격을 최대 10분 단축하고, 김포골드라인으로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7726번** : 고양 덕은지구~DMC역(마포, 상암)을 연계하는 주요 노선이다. 고양 덕은지구는 1,5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며 교통 수요가 증가했지만, 버스노선 부족으로 자동차 이동 10분 거리를(덕은동 종점~DMC역 3KM) 버스 탑승 시 40분까지 소요되는 불편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7726번 노선의 운행방향(덕은동 종점 기준, 시계→반시계 방향)을

변경하여 덕은지구에서 DMC역까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 ('22.12.12.~)하였고, 7726번 증차 요구에 대해서는 덕은~DMC역을 직결하는 고양시 마을버스를 신설, 증차 협의를 완료해 민원을 해결했다.

- **구리·하남시 집중관리지구 9개 노선 신설·증차** : 광역교통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대광위·경기도와 협의하여 구리 갈매지구 680번 노선 신설(군자역 연계), 하남·위례지구 2개 노선 신설(북정역, 가락시장역 연계), 출퇴근시 높은 혼잡도 개선을 위한 기존 노선 증차 (구리 갈매지구 : 78번 2대, 하남 감일지구 : 38번 2대, 33번 1대, 35번 1대, 하남 미사지구 : 87번 2대, 89번 2대)로 주민 이동편의 개선에 적극 합의했다.

-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특히 부도심 광역환승센터 등 진입 노선에 대해서는 광역버스 혼잡도, 입석률 완화를 위해 증차와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 인천과의 국장급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협의를 추진 중이다.

- 오세훈 시장도 “수도권 시민 모두가 곧 서울시민”이라며 교통정책 추진 시 광역 교통 대책 협조, 수도권 시민 편의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이외 에도, 서울시는 광역 통행량이 많은 강남역, 사당역, 당산역 등 주요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7개소 환경정비사업을 실시,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수도권 광역버스 이용승객들이 출퇴근길에 편안하게 환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당역, 당산역, 강변역, 서울역 등 4개소는 '23.3월 준공완료되었으며, 강남역, 홍대입구, 합정역 등 3개소는 4월말 준공될 예정이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출퇴근 수요가 높은 광역버스 협의에 앞으로도 적극 나서 수도권 승객의 주요 고충인 교통 혼잡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미치는 영향이 높은 만큼, 서울시가 광역 교통망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